

“계곡 축제로 무더위 날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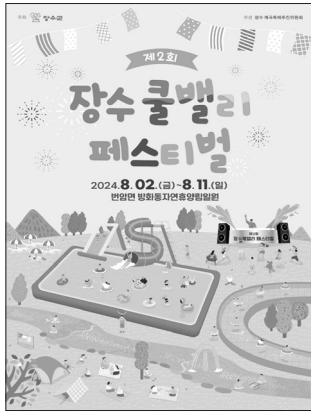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내달 2~11일 방화동자연휴양림서 개최

장수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쿨밸리 페스티벌’은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문화·예술·공연을 즐기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계곡 축제이다.

축제가 열리는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 단위 휴양지로써 사계절 모두 산수화로 그려진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답고, 특히 여름에는 계곡물이 시원하고 열대야와 폭염이 거의 없는 곳으로 유명한 장수군의 여름철 대표 관광명소이다.

이번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전년도 축제가 휴양과 공연 관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함께 즐기는 공연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포스터

더욱 풍성하게 편성했다. 이에 따라 대형풀장이 설치되는 ‘쿨밸리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개막식에는 계곡에서 최초로 펼쳐지는 ‘낙화놀이’가 진행된다. 또한 DJ와 함께하는 EDM 파티 ‘쿨밸리 밸리밤’ 공연 등을 새롭게 도입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수증기 족대항전’, ‘레드푸드를 찾아라’, ‘송어 잡기 및 구이 체험’과 장수군 최고의 가수를 뽑는 ‘밸리 팝스타’ 등 다양한 체험 및 공연으로 최고의 여름 축제가 펼쳐진다. 행사장 내 먹거리도 장수 한우마당, 한우와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요리와 주류, 음료, 기타 분식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쿨밸리’라는 명칭처럼 행사장 전반에 햇볕이 없도록 그늘진 공간을 만들고 물안개 분사시설 등 축제장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임정택 계곡축제추진위원장은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객들이 시원한 방화동 계곡에서 무더위를 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쿨밸리 입장권, 밸리밤 입장권 구매지는 행사장 내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쿨밸리 상품권’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3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 예산반영 건의 및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전춘성 진안군수, 자치도 방문... 김관영 지사에 현안사업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3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 예산반영 건의 및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오는 9월은 내년도 지특회계 전환사업과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등을 검토하고 도비를 편성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만하다. 이에 전 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비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가 요청한 사항은 △진안군 양수발전소 유지, △마이테라피 타운

조성,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국제숙련도 평가 ‘최우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국제적 정확도·신뢰성 확보

진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잔류농약분석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잔류농약분석 국제비교숙련도 평가로 전 세계 각국의 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분석기관 등이 참여해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57개의 기관 및 연구소에서 참여했으며 오이(Cucumber)시료를 분석해 검출된 잔류농약 성분농도가 기준값에 근접할수록(Z-Score ±2) 만족으로 평가된다. 진안군은 12개 농약 성분에서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특히 아세트아미포이드(Acetaminophen) 성분의 경우 기준값(Z-score=0)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성분들도 Z-Score 0.1에서 1.0사이의 우수

한 결과를 얻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진안군은 농산물 잔류농약 분야 함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음으로써 분석 능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진안군은 연간 700여점의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산물의 차단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온열질환으로부터 군민 안전 지킨다

무주군, 상황반 운영·예방 물품 배부·살수차 가동 등 박차

연일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지난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무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수시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해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있으며 이장을 비롯한 마을담당관과 방방간호사 등 재난 도우미를 통해 ‘이쓰네 콜러’와 ‘부채’ 등의 폭염 예방 물품도 배부 중이다. 그늘막 20곳, 물링포그시스템 4곳, 양산양산대여소 10곳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정오에서 오후 5시까지 폭염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살수차도 가동(하루 1~2회 도로 살수)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영농·건설·산업 현장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영농현장에서는 지도·연구직 공무원 등 30여 명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건설 현장과 폐기물중합처리장, 하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열사병 예방 교육 및 폭염 시 행동 요령을 공유하며 인명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시간 부여 여부, 그늘막을 비롯한 의자, 시원한 물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건설국 김광영 국장은 “폭염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들이 폭염과 온열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유정)는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1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표별 평가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자활참여자 성공률,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 모집률, 자활기회 유지율, 광역 공모건을 등을 심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중 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9일 우수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시상식에 참석하여 ‘도약상’을 수상했다. 앞서 2022년에도 유사한 평가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4개의 자활기업((유)나눔푸드, (주)에이인컴퍼니, (주)나눔플러스, (유)마이크린)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70여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술 습득 및 교육 기회를 통해 근로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산불진화대 산불 방지 교육

무주군은 30일 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산불진화대 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소속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131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부 유재만 최용주 강사가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진화 기초지식을 비롯해 산불 진화 안전 수칙, △산불 진화 장비 사용법, △산불 진화 장비 사용 후 관리법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산림보호팀 김도환 팀장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 산림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늘 교육은 산림은 물론, 민원의 상황에 현장 투입이 돼야 하는 진화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지식들이 산림 군 공무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 목공체험 프로그램 진행

장수군은 피서철을 맞아 ‘방화동 자연휴양림’ 성수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다. 장수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연중 운영되며 특히 여름성수기에는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목공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편백도마, 곤충메달, 독사대, 밤비 받침대 등 총 18종의 목공작품을 만들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배종수 산림과장은 “최근 물빛축제를 통해 장수군민과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방화동 자연휴양림과 목공체험을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목공체험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